

## 2024 BBS-FM <진행자 오디션> 지원 관련 안내

안녕하세요?

BBS의 새로운 목소리를 찾는

<진행자 오디션>에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지원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

본인의 목소리로 녹음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1. 본인 소개 (1분 이내)
2. 지정 원고 ①과 ②

\*기한 : 2024년 8월 11일 (일)

\*파일명: BBS 진행자오디션 지원\_(본인 이름 또는 별명)

\*파일 형식: mp3, m4a 또는 wav

\*제출: [bbsradioad@naver.com](mailto:bbsradioad@naver.com)

[주의]

- 지정 원고는 반드시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해야 합니다.
- 지정 원고 ①과 ② 모두 보내주세요. (※택1이 아닙니다.)
- 음원은 편집하지 않은 버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 
(※ 편집점 발견 시, 탈락 사유가 됩니다.)
- 파일명에 성함을 꼭! 넣어주세요.

\*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

## BBS-FM 진행자 오디션 지정 원고 ①

“평등이라 함이 어찌 산을 깎아서  
연못을 채우는 것이며  
학의 다리를 잘라 오리 다리에 이은 연후에라야  
그렇게 되는 것인가.  
긴 것은 긴 것에 맡기고 짧은 것은 짧은 데 맡기며,  
높은 곳은 높은 데 맡기고 낮은 곳은 낮은데 맡김이 평등이다“

〈금강경 오가해〉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

학의 다리는 긴 것이 자연스럽고  
오리는 짧은 것이 자연스럽고  
모든 것이 유별하고 다른 데에  
오히려 평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.

이 계송처럼  
내가 느리고 남이 빠른 것,  
혹은 내가 앞서가고 다른 이가 조금 느린 것은  
그저 각자 다른 성격이자 발전의 과정일 뿐  
누가 더 잘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.

각자 다른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 
나도 남도 가장 고귀한 존재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.

마음 속 자비와 평화의 등불을 켜는 시간  
저는 진행자, **(본인 이름 또는 별명)**입니다.

## BBS-FM 진행자 오디션 지정 원고 ②

당나라 때 양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 
그는 일찍부터 부처님 말씀에 감화를 받아  
언젠가는 불가에 귀의하겠다,고 결심했는데요.

어느 날 사천에 무제보살, 이라는  
불법에 능통한 사람이 있단 소식을 들었습니다.  
그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, 생각하고 무제보살을 찾아 갑니다.

가는 도중 찾집에 들러 간단한 요기를 하는데  
노인 한 사람이 “어딜 가는가” 양보에게 물었습니다.  
그 말을 들은 양보는  
“사천에 무제보살이라는 훌륭한 분이 있어  
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가 되려 한다”고 답했습니다.

그러자 노인은 “ 부처가 되려면 부처를 만나 스승으로 삼으면 되지,  
그 먼 길을 보살을 만나러 가느냐“ 묻습니다.  
깜짝 놀란 양보가  
“혹시 부처님께서 계신 곳을 알고 있느냐” 물으니  
노인은 이렇게 답합니다.  
“지금 곧바로 집으로 가면 이불을 두르고  
신발도 거꾸로 신은 채 뛰어나와서 맞는 사람이 있을 걸세,  
그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네.“

양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죠.  
밤늦게 집에 도착한 양보가 문을 두드리는데,  
노인의 말처럼 옷도 입지 못하고 이불 두른 채  
맨발로 뛰어나오는 이가 있었습니다.  
바로 어머니였지요.

이 때 양보는 크게 깨닫고  
부처님은 집안에 있다, 佛在家中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.

부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전각에 모셔진 부처님 전에  
열심히 절을 하는 일이 아니라  
내 가족, 내 이웃을 부처님으로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요.

부처님은 집안에 있다(佛在家中)는 말이야말로  
진정한 부처님이 누구인지,  
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 
잘 알려줍니다.

마음 속 자비와 평화의 등불을 켜는 시간  
저는 진행자, **(본인 이름 또는 범명)**입니다.